농공상 융합형 中企 올해 67곳 육성

道,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전남도는 취약한 식품 생산기반을 확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67개소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혁신제품 개발과 생산·가공·유통 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27개소를 육성한데 이어 올해 전국 79개소 중 51%에 해당하는 40개소가 선정돼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육성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료 농수산물 수급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된 것은 물론 연간 농수산 식품 수출 2억6000만 달러 달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식품 수출 평가에서 전남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데도 한 몫 했다.

올해 선정된 고흥 한성푸드는 친환경 유자음료를 생산, 판매해 지난해 1600만 달러의 수출 실적과 수확기 하루 600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담양 산들촌은 도내 유기농 쌀을 활용한 스낵을 개발해 국내 대부분의 친환경 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및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향후 전남 유기농식품 발전을 이끌어갈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성녹차영농조합은 식용유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녹차엽 추출물을 개발해 대형마트 등 납품으로 연간 9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해 식품 가공원료 매입 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손영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식품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비춰볼 때 농수산 식품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며 "농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전남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월 4일 '육포데이'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지난 1~2일 이틀간 전남농협 직거래 장터에서 한우 육포 홍보 시식회와 할인행사를 가졌다. 전남농협은 한우 소비촉진 촉진을 위해 육포를 연상시키는 숫자 6(육)과 4(Four)를 조합해 6월 4일을 '육포데이'로 정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담양 생막걸리 '대대포' 이달의 전통 술 선정

전남도는 6월의 남도 전통술로 담양 죽향도가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막걸리 '대대포'를 선정했다.

대대포는 100% 유기농 쌀과 토종 벌꿀을 자연 발효시켜 빚은 최고급 생막걸리다.

판매가격은 750㎖ 4병 기준 세트당 8000원. 홈페이지(www.nozzang.co.kr)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완도 군민 건강 걷기대회 성료

최경주 공원서 당구 얼짱 차유람 등 500여명 참가

'제7회 완도사랑 군민건강 걷기대회'가 지난달 31일 최경주 해변공원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날 대회는 홍보대사인 당구스타 차유람 선수를 비롯해 김종식 군수, 김영록 국회의원, 박삼재 군의회 의장, 장진숙 완도교육장, 윤성현 완도해경 서장, 김정오 농협군 지부장, 박경남 군 번영회장, 각 급기관 사회단체, 주민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걷기코스는 최경주공원 해변 야외 음악당을 출발해 빙그레 공원~완도타워를 거쳐 해변공원으로 되돌아오는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완도군 건강한 지역사회 운영협의회는 행사에 앞서 "군민건강 걷기 대회를 통해 군민 결속과 화합으로 진정과 투서없는 건강한 완도를 만들고, 분열과 갈등이 없는 행복한 완도를 만들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행사 후 참가자들에게 김치냉장고와 자전거, 가전제품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KTX 나주역 경유 온힘 쏟자"

민주 배기운 국회의원 등 참석 나주시 첫 당정협의회

나주시는 지난 1일 시청 이화실에서 민주통합당 배기운 국회의원 등 당 관계자와 시의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첫 당정 협의회를 갖고 '호남고속철(KTX)의 나주역 정차'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배기운 의원은 "19대 국회 등원과 함께 처음으로 나주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며 "국토부로부터 KTX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받는 대로 나주시와 공유해서 KTX의 나주역 정차를 확정짓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한전KPS 연수원 나주 유치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당과 시가 협력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자고 말했다. 또 왕곡 일대의 미래산단 조성과 관련,나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임성훈 시장은 "KTX의 나주역 정차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의 교통거점 역할과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꼭 성취해야할 목표"라며 "혁신도시 완성과 기업유치, 미래산단 개발 등 지역 발전 현안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역점 현안사업으로 ▲호남고속철 나주역 정차 ▲공동 혁신도시 추진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조성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야기 · 역사 · 경제가 어우러진 관광자원화 사업 ▲색(色)산업 발전을 위한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 ▲민간참여의 농·어업회의소 운영 ▲친환경 유용미생물 구축을 위한 친환경과학 영농센터 ▲친환경 원예수출 전문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

광양제철 '1조 수익' 결의대회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 임직원 100여명 참석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4 고로에서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백승관 광양제철소장, 최향기 노경협의회 대표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향상 결의대회를 가졌다.

광양제철은 올해 포스코 전체 목표금액의 45% 수준인 1조원을 수익성 향상 목표로 설정했다. 광양제철은 지난해 8739억원의 수익성 향상을 이뤄냈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수익은 현금원가(cash cost) 절감과 생산성 향상, 판매증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창출된다"며 "일반적인 원가절감 활동보다 넓은 범위"라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도, 중국통 공무원 기른다

교류확대 대비…목포대에 중국어 교육과정 개설

전남도가 중국과의 교류 확대 등에 대비, 공무원 대상 중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교육에는 전남도청 공무원 102명이 신청했으며 4일 개강한다.

목포대가 맡아 운영하며 교육시간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퇴근 시간 이후 진행된다.

강의는 공무원들이 행정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상용회화 위주로 구성됐다.

중국어 교육은 대중국 진출과 교류 확대 등에 대비하고 공무원들의 중국어 구사능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뤄졌다. 전남도는 중국어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들을 국제 행사장이나 주요 관광지에서의 통역과 안내요원, 대중국 투자 전문요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